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의 셋째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확립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 :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첫째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에 대해, 둘째 주에는 자기 부정에 대해, 오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확립을 위해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호칭의 의미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아버지의(Heb ; Ab) 의미

1. 성경에는 창조에 기초한 아버지 개념(God's creative Fatherhood)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 하나님으로 부터 시작이 되셨다는 의미에서 아버지이지요.

신명기 32 : 6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2.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God's special relationship to Israel).

출애굽기 4 : 22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아버지가 아닌 민족 전체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3. 다음에 **구속자로서 (God' s Fatherhood by virtue of Redemption)로서 아버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사야 63 : 16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4. 그 다음에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아버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 : 4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이런 전통에 의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¹.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Our Father)라고 부른 것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아버지는 아람어 abba를 번역한 말로서² 아빠, Daddy의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족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른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독특한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이 용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누리게 될 축복을 예시하는 말입니다.

II. 다음에 우리는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1. 구약 성경에는 **생도, 문하생으로서의 아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¹ When God is called Father in the Old Testament, He is regarded as Father of the nation, not of the individual. Even in the moving prayer of [Isaiah 63:16](#) (the King James Version), "Doubtless thou art our father," the connection makes clear that the reference is to God in the capacity of Creator. The thought of God as the Father of the individual is first reached in the Apocrypha: "O Lord, Father and Master of my life" ([Sirach 23:1](#); compare [Wisd. 2:16](#); [Wisd. 14:3](#)). Here also the notion is veiled in the thought of God as Creator. It was left for Jesus the Son to give us the privilege of calling God "Our Father."

². Jeremias 는 4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마가복음의 겐세마네의 기도에서 한번 나오지만,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리스어 Pater 는 아람어 abba 를 번역한 말이 라고 함.

열왕기하 2 : 3 벤엘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the sons of the prophets)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구절에서 생도는 sons 의 의미예요. 아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ben 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생도라는 말은 선지자의 아들들 이런 뜻으로 어떤 단체에 가입된 멤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를 믿는 신도나, 예수님의 문하생이라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의미,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왜 지금 바울 성서 아카데미를 시작하였나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칼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알아야 할 사항인데도 성경에 대해 깊이 가르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는 실제적인 신앙 생활과 관계없는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성경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도 신학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로칼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바울 성서 아카데미는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링하나, 진리에 관심이 있는 특수한 부류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아들의 깊은 의미도 이러한 공부라 될지 몰라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로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 : 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 : 61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나
히브리서 1 : 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 구절들에서 아들이라는 의미는 어미가 낳은 아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에서 낳았다 하는 말은 born 이 아닌, begotten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begotten Son 이라고 부릅니다. The Only Begotten Son 을 의역하여 우리 말로 번역한 것이 요한 복음에 나오는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독생자의 의미는 ‘혼자서 발생한 아들’ 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난, born of woman 이 아닌, 아버지로 부터 스스로 혼자 발생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탄생하였다라는 말대신 ‘발생한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피조성이 없다는 의미에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창조의 근원으로서, 유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하여 죽이고자 날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으로 부터 스스로 발생한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신분으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임을 확실히 알고 믿어질 때 거기서 부터 새로운 확신과 믿음의 힘이 오게 됩니다.

III.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확립 되는 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어떤 분을 만나 전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좋아 만나 결혼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애를 낳고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묻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Mr. 김을 만들었습니까?”

또 계속해서,

“Mr. 김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Mr. 김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왜 Mr. 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께서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1.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
2.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 관계라는 것.
3.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짐’ 으로, 하나님과 부자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여기서 부터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제 2 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이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에 기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요즈음 세명 대학 석좌 교수인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도마 복음이야기라는 것으로, 부분적인 기독교에 대한 지식으로 비판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한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버지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꿈이 단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나,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고 하는 설화를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 연결하여, 동등한 수준의 설화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설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도올은 세상 지식에 있어서 얼마나 유식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주장은 과거 기독교와 반기독교의 역사적 논쟁에서, 반기독교적 사람들이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를 부분적으로 다시 쫓아 모아 자신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박혁거세의 탄생 이야기의 다른 점은 그 역사성에 있습니다.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화일 뿐 역사성이 없습니다. 박혁거세가 자기를 낳은 알에게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들어 봤습니까? 단군이 꿈을 찾아 자기 조상으로 모셨다는 말을 들어 봤습니까?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화일 뿐 역사성이 없으나.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됨은 그의 전 일생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신화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 즉 그의 신성은 신자 안에서 여전히 다시 계속 체험되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 다시 계속하여 체험되고 있습니다. 그의 신성이 역사 속에서 신자들 안에서 다시 체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군이 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누가 체험하고 있습니까?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누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2000 년 전에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역사적 사실은 그후 신자들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확신 속에서 체험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점이 기독교가 그 많은 핍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타오르게 한 것입니다. 도율이 자기 주장을 하려면 무책임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 사실부터 명백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화일 뿐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설화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부터 시작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역사적 사실에 대해 차근 차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나, 유대인의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셨지만,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천아버지라고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12 살 때에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집으로 귀가할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는 줄만 알고 하룻길을 그냥 갔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사흘 후에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 : 49 --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요한복음 2 : 15 --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요한복음 2 :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찌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주를 의미하는 “아도나이” 라는 말로 대신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천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 죄로 들어가고, 신성 모독 죄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신성 모독 죄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4 : 61 --- 네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마가복음 14 : 62 --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가복음 14 : 63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마가복음 15 : 1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어 죽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자기의 천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천아버지이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것은 그 분으로부터 생명을 전달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발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터 태어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 :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마태복음 1:18 은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말은 성령과 마리아의 난자가 접합하여 태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지요. 단순히 마리아의 womb 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기적으로 발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터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던 전체 기간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순간에도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사도들도 여러 곳(고후 11:31 ;에베소서 3:14)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5 : 6 을 보면

“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복음 5 : 18 은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즉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제 이 위 성자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오랜 역사 안에서 계시된 계시적 진리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의 구원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닐 때에 그의 죄 없으심과 부활이 무너지는 것이며, 성령께서 제 3 위 보혜사 하나님이 아닐 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삼위일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있게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2.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소유하여 예수님과 형제 관계로 들어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여러 번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주지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5:26 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 : 40 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요한복음 3 : 36 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 : 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예수님과 함께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과 형제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중생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같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므로 예수님과 함께 형제 관계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 : 29 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말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함께 소유한 형제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아우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들로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3 : 5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히브리서 3 : 6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맏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국가 건설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servant)으로 충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세를 따라 모세와 함께 일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있게 됩니다.

모세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간 자는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있게 됩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구속의 질적 효력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구속의 효력에 있어서 지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마음놓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놓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지위에서, 아들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뵤후 1:4 에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다” 고 말합니다. 신의 성품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오래참음, 자비, 충성, 절제, 온유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짐’ 으로, 하나님과 부자 관계로 들어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중생입니다.

중생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짐으로, 예수님의 아우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과 한 치의 차이도 없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도올 김용옥과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 : 6 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아들의 영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닌, 가까이 계신 아바 아버지가 됩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늘을 쳐다보며 막연히 ‘하느님’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가깝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가깝고 친근하게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거나 젊은 사람이거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모두 구별 없이 천국에서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선 어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공부를 하신

주기도문강해 web-page 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 타이틀의

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 Like button 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음 공부로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Eg. 만약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공부하셨으면

인터넷 브라우저의 좌측 상단으로 가셔서



를 누르시면 주기도문 강해 web-page 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서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설명한 내용 하단에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모든 타이틀마다 다 Like Button 이 있습니다.